

# 193만 전남 인구가 5년 뒤 250만명?

### 22개 시·군 도시계획 현황조사 추정인구 부풀려 책정 道, 60만명 거품 줄이기...주거·상업지역 조정 점진 감축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의 도시계획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이나 2020년 추정인구를 모두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22개 시·군의 2015년 또는 2020년 인구를 모두 합하면 254만 명을 넘어서 지난해 말 인구 193만4034명보다 60만명 이상이 많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재정비를 통해 '추정인구 줄이기'에 나섰다. 지나치게 줄일 경우 현재 도시기반시설 축소, 주거·상업지역 등의 대거 조정 등이 불가피해 점진적으로 감축시키기로 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 2020년 31만명, 여수시 2015년 37만4000명, 순천시 34만명, 나주시 14만명, 광양시 25

만명, 영암군 15만명, 해남군 13만명, 무안군 11만명 등 22개 시·군의 추정인구를 합치자 254만4129명으로 집계됐다.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의 지난해 말 인구는 각각 24만1744명, 29만4459명, 27만8899명, 9만2671명, 15만3670명 등으로 모두 5만명 이상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지난해 말 거주인구가 6만3602명인 영암군은 10만명 가까운 인구를 증가시켰다.

이들 시·군은 주민 민원, 지역 발전, 단체장 공약 등을 위해 '인구 부풀리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인구를 근거로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상업지역 등의 변경을 담은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하면서 소도시, 농촌 경관과 어긋나는 난개발이나 시설 과잉 공급 등의 부작용이 제기됐다. 또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을 아파트단지, 유원지 등으로 개발하면서 전남 전체의 자연자원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통계청은 2040년 전남 인구를 172만6387명으로 추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부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에 나서는 시·군의 추정인구를 축소하고 나섰다.

지난 2월26일 열린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수시의 2020년 추정인구를 35만명으로, 2015년보다 오히려 2만4000명 줄였다. 또 관리지역 세분 등 주거·상업 등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전

남도의 검토의견에 따른 것도 주문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 40만5788㎡의 자연녹지지역을 모두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 단지 등으로 조성하려했던 영암군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인근에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3개 사업지구 중 하나인 삼포지구가 조성되고 있는데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의 무리한 개발이라는 지적으로 부결된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2개 시·군이 2000년대 후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정인구를 늘린 것"이라며 "무리하게 축소하면 용도지역 재조정 등으로 거주주민의 불편이나 지자체의 발전전략에 지장이 생길 것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한 뒤 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 호남고속철 개통식 참석 박대통령 나주 혁신도시 방문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옥영수 여사가 지난 1971년 나주 호혜원을 방문해 종돈 55마리를 기증한 뒤 주민들과 환담하고 있다. 육 여사의 40여 년 전 선황들이 사진첩에 담겨 1일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전남도 제공>

## 이낙연 지사의 '특별한 선물'

### 44년전 호혜원 등 방문한 故 옥영수 여사 사진첩 건네

호남고속철도 1단계(광주송정~용산) 개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박 대통령의 모친인 故(故) 옥영수 여사가 나주 한센인 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준비한 것이다.

이 지사는 "옥영수 여사께서 1971년 12월 헬기를 타고 이곳 한센인촌 '현애원'을 방문해 씨돼지 20마리를 주셨다"며 "그때 사진 등을 엮어 선물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옥영수 여사 추모비도 있고 나주는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답했다. 사진첩에는 고 옥영수 여사와 현애원

의 인근에 있던 또다른 한센인 마을인 호혜원과의 인연이 고스란히 담겼다. 1965년 6월 이 마을을 방문해 목욕탕 건립비를 기증한 고 옥영수 여사는 이후 1971년 두번째 방문해 한센인들의 자립생활을 돕는다는 취지로 종돈 55마리를 기증했다. 주민들은 1975년에 육 여사의 추모비를 건립하고 매년 추모행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빛가람 혁신도시가 조성된 뒤 호혜원의 '돼지'는 약취의 주원인이 돼 이제는 사라질 시기만 남겨놓고 있다. 이날 강인규 나주시장은 잔여 가족과 축사·토지보상 등에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완전한 개선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50주년 '전기의 날' 8일 나주서 기념식

115년 전 국내 최초로 민간에 전등을 켜는 행사를 기념하는 '전기의 날' 행사가 오는 8일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다.

1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제50회 전기의 날 행사를 8일 오후 5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 본사에서 개최한다.

전기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종로의 전자 대표소와 가로등을 점등한 것을 기념해 1966년 제1회 기념식이 열렸다.

전력산업계의 최대 행사로 정부와 한전의 후원 아래 전기 산업계의 중심단체인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해 현재 격년제로 치르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지만 올해부터는 기념식을 나주에서 치르기로 했다.

기념식에는 국회 산업위원장, 산업부장관, 광주·전남 시도지사, 한전 사장, 전기관련 단체장, 전력산업 관계자, 전기협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기산업 유공자 포상과 우수 전기공학도 15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 전기산업인 공모전 수여 등이 있을 계획이다.

1965년 창립한 대한전기협회는 한전 사장이 협회장을 맡고 5개처 1원 15팀 3실로 112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련 산업계의 법인 216개사, 개인 412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6·15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발족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복 70돌, 6·15민족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디플레이션 공포' 현실화 되나

### 물가 상승률 2개월 연속 마이너스...산업생산 지표도 불안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전(全) 산업생산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경기 회복세는 미약해 저물가와 불안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다. 0.3%를 기록한 1999년 7월 이래 15년8개월 만의 최저치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0%대이고 12월 0.8%, 1월 0.8%, 2월 0.5%, 3월 0.4%로 상승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3월 상승률은 담뱃값 인상 효과(0.

58%포인트)를 제외하면 2월에 이어 다시 마이너스다. 담뱃값을 올리지 않았다면 물가 수준이 하락했다는 의미다.

불안한 경기 흐름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2월 산업생산 지표는 1월에 비해 반등하긴 했지만 설 명절 효과 등 특수 요인의 영향이 커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광양만권에 3200억 관광시설 조성

### 전남도-에이플러스리얼티 협약...컨벤션센터·佛 유명호텔 등

광양만권에 프랑스 특급호텔과 함께 컨벤션센터, 업무 및 주거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1일 이낙연 전남지사,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오윤열 여수지방 투자자문 김용순 대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3200억원 규모의 복합관광 숙박 시설 설립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런 협약에 의하면 에이플러스리얼티 투자자문 컨소시엄은 광양만 배후단지 내 1만2000㎡ 부지에 3200억원을 투자해 프랑스 루브르호텔그룹이 운영하는 특급 호텔 및 컨벤션센터, 업무 및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투자기업 (주)에이플러스리얼티투자자문은 (주)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한

국도지신타, (주)현대엔지니어링, (주)원양건축사사무소, 프랑스 루브르 호텔그룹 등과 투자 및 운영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번 투자 컨소시엄에 참가한 기업이 각 각 재무적 투자, 건축, 호텔 운영, 설계를 담당하기로 해 짜임새 있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텔 운영 예정사인 루브르호텔그룹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미국 투자회사인 스타우드 캐피탈그룹이 네덜란드 호텔그룹 골든틀립 호스피탈리티 그룹과 프랑스 호텔그룹 소시에테 뒤 루브르를 인수 합병해 탄생했다. 루브르호텔그룹은 '골든틀립', '로얄틀립' 등 6개의 호텔 브랜드와 세계 50개국에 걸쳐 1200여 개의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부직용: 수술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